

《민주사회주의론》의 경제적내용과 그 반동성

신 혁

《민주사회주의론》은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안에 나타난 우경기회주의적사상조류의 하나이다.

《민주사회주의론》이 처음 출현한것은 1923년 프랑스사회당내에서 혁명적사회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파가 떨어져나와 《민주사회주의론》을 독립적인 정치철학으로 선언하면서부터였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후신이며 그 변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는 일찌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리용하여온 반동적사조입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3권 269페이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진것은 도이쉴란드의 소부르쵸아기회주의자인 라살이 조작한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조직인 전도이쉴란드로동자협회의 기관지 1865년 1호가 발행된 때이다.

이 시기 혁명적맑스주의자들도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로부터 단순히 부르쵸아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리해하면서 자신들을 《사회민주주의》자로 자처하였으며 사회주의당을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로동당으로 불렀다. 전형적인 실례로 되는것이 도이쉴란드의 윌헬름 립크네흐트와 베벨 등에 의하여 1869년에 조직되고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지도된 도이쉴란드사회민주로동당(창립당시)이다.

그후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독자적인 기회주의적사상조류로 체계화될수 있는것은 수정주의가 대두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수정주의는 당의 계급적성격을 거세하고 당을 개량주의당으로 만들며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을 부인하고 계급협조를 주장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거부하였다.

맑스와 엥겔스가 서거한 후 도이쉴란드사회민주당의 지도부에 들어앉은 베른슈타인은 제2국제당을 기회주의정당으로 전락시켰으며 기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그후 기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는 제2국제당아래 거의 모든 당들에 파급되었다. 도이쉴란드사회민주당은 1903년에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부르쵸아반동정부에 참가할것을 주장하였으며 프랑스로동당은 낡은 부르쵸아국가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정부에 참가하는것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다는 내각주의라는것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영국, 짜리로씨야 등에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들이 출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유럽의 거의 모든 사회민주당들이 자국의 부르쵸아지들과 공모결탁하여 제국주의침략전쟁을 고취하는 사회배외주의로 넘어갔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는 혁명적맑스주의의 진리성과 《사회민주주의》의 부당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였으며 점차 《사회민주주의》는 배격받고 내부분렬이 일어

나면서 그것이 개악되어 발생한것이 《민주사회주의》이다.

《민주사회주의》는 1929-1933년 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모순이 폭발하자 그것을 《민주주의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널리 류포되었다.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은 《민주사회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민주헌정+혼합소유+사회시장경제+복리보장제도》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민주주의적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를 하며 국가소유, 협동소유, 사적소유 등 모든 소유형태를 민주주의적으로 허용하고 시장경제를 사회가 장려하며 정부가 사람들의 복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라고 규정하였다.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면서 서로 대립할수밖에 없는 리념이 아니라 서로 《접합과 동맹》이 가능한 리념이라는 기초에서 민주주의만 충분히 발휘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리념이라고 보았다.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은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은 같지만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사회의 근간으로 보고 《민주사회주의》의 리상은 정부에로의 권력의 절대적집중을 막으며 권력소유를 분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고발전상태가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비민주사회주의》와 다르다고 떠들었다.

《민주사회주의론》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일정하게 인정하면서 의회와 선거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자는 주장과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개량하자는 절충적 형태의 주장이 있다.

《민주사회주의론》의 경제적내용은 첫째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것이다.

《경제민주화》란 한마디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경제주체(기업, 개인)들이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민주주의적으로 하며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국가에 의하여 계획과 생산활동이 설계되고 기업들이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계획경제도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자본과 대기업의 독점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장경제도 폐단이 있기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것이다.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자경영참가제도를 내오고 노동자들을 경제정책작성과 경영에 적극 참가시키며 독점자본을 통제하고 소주주들의 주주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사회주의론》의 경제적내용은 둘째로, 《혼합소유》형태를 장려해야 한다는것이다.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은 사회주의경제가 반드시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공공소유를 전제로 하고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공소유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제하므로 공공소유와 사적소유를 결합한 《혼합경제》가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혼합경제》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생산과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기업가, 노동자, 정부사이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계획이라고 하였다.

《민주사회주의론》의 경제적내용은 셋째로, 노동조합을 통하여 경제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개변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것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착취를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회단체이다.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은 노동조합의 근본목적은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

는것이며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투쟁방법은 단체교섭이고 최후의 방법은 파업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기업과의 교섭과 타협, 그것으로 안되면 파업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면 지배계급과 자본가가 굴복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공장을 인수하여 사회주의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사회주의론》은 발생 이후 자본주의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들쭉거렸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그 허황성이 실천에서 론증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일부 나라들에서 다시 《민주사회주의론》을 제창하고있다. 그들은 《민주사회주의론》이 맑스주의를 올바르게 계승한것이라고 하면서 폭력적인 혁명이 없이 투표를 통하여 정치적자유를 먼저 획득하고 경제적으로 민주화를 실현하면 사회주의로 넘어갈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시기 《민주사회주의론》의 반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사회주의운동에서 우경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주사회주의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독점자본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될수 없는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옴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킨다는데 있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기업,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근로인민대중이 경영관리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가한다는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기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며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것이 경제생리이다. 이로부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해마다 한 나라에서만도 수만개의 중소기업이 파산되고 수십만명이 실업자로 되고있다. 인간의 육체적생존조차 보호받기 어려운 자본주의사회에서 동등한 경제적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없는것은 공리와도 같은 리치이다.

《민주사회주의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노동조합으로 실현할수 없는 사회주의를 제창한다는데 있다.

노동조합의 력사는 1825년 영국의 런던과 북부산업지역에서 처음 소규모로 노동자들의 조직이 형성된데 이어 1830년대초 도이칠란드의 면직산업과 건축산업에서 지방노동조합들이 합병하여 전국적노동조합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노동조합은 합법적조직으로서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등 노동자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기업주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고 임금인상,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자 자본주의국가와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동귀족을 키우고 노동조합의 상층을 매수하여 노동조합을 어용로조로 만들었다.

부르조아지들에게 매수된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노동조합들은 계급투쟁의 가치를 내던지고 로자간의 《계급협조》를 설교하면서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대중속에 부르조아사상을 퍼뜨리는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변질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한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성격은 조합이지 사회주의혁명에서 참모부역할을 하는 정당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혁명을 이끈 실례는 력사에 전무후무하다.

《민주사회주의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자본주의경제태내에서 소유를 《다양화》하여도 사적소유의 변종외에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는 사실을 미화하고있는데 있다.

《민주사회주의론》자들이 주장하고있는 국가소유, 지방소유, 협동조합소유, 사회적소유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소유인것이 아니라 있는자는 고용주로, 없는자는 고용자로 되어 노동력에 대한 착취관계가 형성되는 불평등한 소유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민주사회주의론》을 내세워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사회정의와 사회복지를 실현해야 하며 21세기에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민주사회주의》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성격을 비하하고있다.

기회주의는 노동운동내에 나타난 부르쥬아 및 소부르쥬아사상이며 사회계급적기초는 자본가계급에게 매수된 노동계급의 상층부 또는 비겉분자들, 부르쥬아 및 소부르쥬아사상에 포로된 혁명의 변절자들이다. 기회주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정주의, 교조주의, 좌경모험주의, 투항주의로 나가며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밑에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그 혁명적진수를 말살한다.

우리는 《민주사회주의론》의 반동성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리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할것이다.